

의성 지역어 ‘르, 애, ㅎ’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 차이*

-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김세환**

|| 차례 ||

- I. 서론
- II. 불규칙의 명칭과 관련된 문제
- III. ‘르, 애, ㅎ’ 불규칙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의성 지역어의 르-불규칙, 애-불규칙, ㅎ-불규칙이 기저형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2장에서는 불규칙의 정도성 문제와 명칭 문제를 고찰하였다. 르-불규칙은 의성의 서부에서는 중부 방언과 유사하게 복수 기저형 /X{—르}-/로 존재하며 동부에서는 복수 기저형 /X{ | -리}-/로 존재한다. ‘모르다’의 경우는 서부와 동부 모두 /X{ | -레}-/의 형태로 존재한다. 르-불규칙 용언이 아닌 ‘읽다’는 이 지역에서는 르-불규칙 용언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형이 나타나 기저형도 르-불규칙 어간과 동일하다. 애-불규칙은 서부에서는 주로 /Xㅎ{ ㅏ -ㄱ}-/로, 동부에서는 주로 /X{ ㅎ -ㄱ}-/로 나타난다. ㅎ-불규칙1은 기존의 ㅎ-불규칙에 대응되는 것으로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X{ ㄴ -ㅏ -ㄱ}-/의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ㅎ-불규칙2는 ‘많다’에서처럼 주로 기저형은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X{ ㅎ -ㄱ}-/로 존재한다. ‘옳다’의 경우 서부에서는 중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단일 기저형 /Xㅎ-/로 존재하며 동부에서는 ‘많다’와 마찬가지로 복수 기저형 /X{ ㅎ -ㄱ}-/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ㅎ-불규칙2에 해당한다. ‘그렇다’는 동부에서는 ㅎ-불규칙2

* 이 연구는 2015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 해당하는 복수 기저형의 유형을 보여 /X(ㅎ-ll)-/로 존재하지만, 서부에서는 음운의 변화로 인하여 기저형이 달라졌다.

주제어 : 의성 지역어, 르-불규칙, 애-불규칙, ㅎ-불규칙, 복수 기저형, 불규칙

I. 서론

이 글은 경북 의성군의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소위 불규칙 용언 중 ‘르-불규칙’, ‘애-불규칙’, ‘ㅎ-불규칙’ 용언의 기저형 차이를 논의하고, 이 논의를 통하여 기저형 변화의 방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불규칙과 관련된 정도성의 문제와 불규칙의 명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용언 어간 기저형의 변화 요인은 다양하나, 음변화, 유추, 재분석 등을 위주로 변화의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유추는 기저형의 수를 감소시키는 평준화와 두 기저형 간의 유사성이 높아지는 감염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불규칙 용언 어간의 변화는 이러한 요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관여하여 이루어진다.

의성 지역어의 ㄱ-불규칙, ㄴ-불규칙, ㄷ-불규칙 등에 대해서는 김세환(2016)에서 다루었다. ㄱ-불규칙 어간의 경우에는 동부 지역은 단일 기저형 /Xㄱ-/으로 존재하나, 서부지역은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ㄴ-불규칙 어간은 서부와 동부 모두 후음 말음 어간 또는 ㄴ 말음 어간으로 존재한다. ㄷ-불규칙 어간은 ‘신다’를 제외하고,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복수 기저형 /X(ㄷ-ㄹㅇ)-/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의성 지역에 대한 개관과 의성 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은 김세환(2016)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간추린 내용만을 아래에 제시하고자 한다. 의성 지

역은 최명옥(1994)에서 경북의 중동동부방언으로 분류하였으며, 의성의 서쪽 세 지역(다인면, 단북면, 단밀면)은 상주의 영향을 받고 의성의 동쪽 세 지역(옥산면, 사곡면, 춘산면)은 경북의 동해안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의성군 지도〉

의성 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으로는 의성의 서부 지역은 ‘살(피부):쌀(음식)’에서 ‘ㄴ:ㄸ’ 변별이 있으나, 동부 지역은 ‘ㄴ:ㄸ’이 변별되지 않았다. ‘으:어’의 대립에서 의성의 서부 지역은 조사 지점에 따라 ‘글:걸’에서 ‘으:어’의 구별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부 지역은 모두 ‘으:어’가 대립되었다. 형태소 경계에 있는 ‘이+어’의 환경에서 서부 지역은 완전순행동화가 되고 (달리랴[HLL](달리--+어라)), 동부 지역은 반모음화 이후 반모음 y가 탈락한다(때리랴[HLL](때리--+어라)). 성조는 모든 지역에서 변별적이며 동부의 일부 지역은 상승조가 하강조로도 나타나 ‘마리(말(語))+이)’는

RH 또는 FL로 실현된다.

이 글에서는 신승원(2000)의 자료를 주 자료로 하고, 필자가 2016년 2월에 조사한 자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국립국어원(2009)의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글은 2장에서 불규칙과 관련된 정도성과 불규칙 어간의 명칭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명칭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불규칙 어간 중 르-불규칙 어간,¹⁾ 애-불규칙 어간, ㅎ-불규칙 어간에 대하여 주로 살펴본다.²⁾

II. 불규칙의 정도성과 명칭 문제

이 장에서는 불규칙 용언을 다룰 때, 불규칙에 대한 관점과 불규칙 어간의 명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 글에서 다루는 불규칙을 어떠한 관점으로 서술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진호(2015)에서는 ‘불규칙’의 개념과 역사적인 쓰임 고찰하고 불규칙성의 판별에 ‘음운 규칙의 적용 가능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생성 음운론 도입 이후 형태소의 교체를 설명할 때에는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규칙으로 판명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르-불규칙, 애-불규칙, ㅎ-불규칙 등은 공식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

1) 소위 르-불규칙 어간은 이 지역어에서 잘 쓰이지 않아 이 글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2) 이 글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불규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추후의 논의를 통하여 ‘불규칙’의 정도성, ‘불규칙’의 개념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를 이어가고자 한다.

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으로 분류하게 된다.

한편, 박선우(2004), 이진호(2014)에서는 형태소가 교체하는 양상을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태도를 지양하고 정도성의 문제로 이를 판별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진호(2014: 14-17)는 세 가지 분류 기준으로 규칙과 불규칙성을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형태소의 교체가 세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규칙성이 가장 높은 I 부류의 교체가 되고, 모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장 불규칙성이 높은 V 부류의 교체에 해당한다.³⁾

예를 들어 ‘밭(田)’의 곡용형에 나타나는 ‘밭이, 밭을, 밭은, 밭으로, 밭에’ 등은 일반 원리, 즉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ㅈ’ 발음 체언에서 변화한 ‘밋이, 밋은’(밋(低)) 등에서 보듯이 동일한 형태소 부류를 일반화할 수도 없다. 그리고 교체의 환경도 특정 조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어간은 V 부류에 해당하는 교체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르-불규칙, 애-불규칙, 흥-불규칙 어간의 교체는 규칙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불규칙 용언으로 불려온 것들이다. 르-불규칙 용언을 대상으로 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르-불규칙 용언의 교체는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생기는 현상을 음운 규칙으로

3) 이를 나타낸 이진호(2014: 17)의 표에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약간 수정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준 \ 부류	I	II	III	IV	V
일반 원리 (음운 규칙)	○	×	×	×	×
동일 형태소 부류 일반화(입력형)	○	○	○	×	×
환경(조건) 일반화 (적용 환경)	○	○	×	○	×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용 환경과 관련하여 아-계 어미 앞이라는 환경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적용 환경은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동일한 교체를 보이는 형태소를 같은 부류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된다. 방언에서 르-불규칙 어간에 해당하는 ‘오르-’의 교체를 보면서 이것이 위 표의 II부류인지 IV부류인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 (1) 오르고, 오르니, 올라(중부 방언)
 오리고, 오리니, 올라(동남 방언)
 올르고, 올르니, 올라(중부 방언)

이들 교체형을 볼 때 기저형은 각각 달리 설정하여야 하겠으나, 각각의 방언에서 ‘르’로 끝나는 어간, ‘리’로 끝나는 어간은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어간이 ‘르’로 끝나는 지역에서 ‘따르다’(隨)에 대하여 ‘따르고, 따르니, 따라’와 같은 활용형이 보여,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따라’와 같은 교체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간이 ‘리’로 끝나는 동남 방언에서는 ‘그리다’(晝)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니, 그려(그레, 그리)’ 또는 ‘기리고, 기리니, 기려(기레, 기리)’ 등으로 활용하여, 아-계 어미 결합시 ‘*글러, *길러’와 같은 교체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르-불규칙 어간의 교체 양상은 공식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고 형태소 부류의 일반화도 불가능하다. 다만 적용 환경의 일반화는 가능하므로 위 표에서 IV부류의 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불규칙의 명칭과 관련하여 배주채(2003: 158)에서는 르-불규칙 용언에 대하여 ‘르-불규칙 용언 1’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러-불규칙을 ‘르-불규칙 용언2’로 부르면서 둘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애-불규칙 용언으로 불려왔던, 용언 ‘하다’의 활용형 ‘하고, 하니, 해’는 ‘아-불규칙

용언’으로 명명하였고, 전통적으로 흥-불규칙 용언은 그대로 흥-불규칙 용언으로 불렸다.

이에 대해 송철의(2004/2008: 156-162)에서는 ‘흥’ 불규칙과 ‘어’불규칙에 대하여 다루면서 용언 ‘하다’의 활용형 ‘하고, 하니, 해’에 대하여서는 애-불규칙이 아닌 아-불규칙으로 명명하였다. 그 이유는 ㄷ-불규칙 등에서 ‘ㄷ’이 ‘ㄹ’로 교체하는 경우에 ㄷ-불규칙이라 하듯이 ‘하다’의 어간말 모음 ‘아’가 ‘애’로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불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흥-불규칙에 대하여서도 양/양-불규칙으로 명명하였다. ㅅ-불규칙은 ‘ㅅ’ 탈락만 이루어지는데 흥-불규칙은 ‘흥’ 탈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랑+아→노래’와 같이 ‘양/양’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애-불규칙은 아-불규칙으로, 흥-불규칙은 양/양-불규칙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편의상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 글에서도 서술의 이점을 위하여 기존의 명칭을 취하고자 한다.

그런데 흥-불규칙 중에서는 ‘양/양’이 교체하는 기존의 흥-불규칙 어간과 다른 교체를 보이는 어간이 있다.

(2) 많다: 만타[RH], 마느마[RHL], 마네도[RHL]

이 어간 역시 ‘X흥-’에서 발달된 것이지만, ‘으’가 줄어들면서 1음절어가 되었으며,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기존의 흥-불규칙처럼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애(에)’로 교체되었다. 이때 기존의 흥-불규칙 어간은 ‘양/양’이 교체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어간만 보았을 때는 ‘흥’만이 교체되어 조금 다른 교체 양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양’이 교체되어서 전통적으로 흥-불규칙으로 불러 왔던 것은 흥-불규칙1으로 부르고, ‘흥’만 교체되는 위와 같은 경우는 흥-불규칙2로 부르기로 한다.

Ⅲ. ‘르, 애, ㅎ’ 불규칙

이 장에서는 ‘르, 애, ㅎ’ 불규칙 어간의 활용형을 의성군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제시하며 기저형도 활용형을 토대로 각각 제시하여 기저형의 변화를 확인한다. 주로 의성의 서부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동부 지역의 활용형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기저형의 변화 단계를 비교하고자 하며 서술의 편의상 일부는 동부 지역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3.1 르-불규칙

르-불규칙 어간은 의성의 서부와 동부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20세기에 경상도에서 발생한 ‘르>리’의 변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⁴⁾ 그래서 서부는 ‘X르-’형이 나타나고, 동부는 ‘X리-’형이 나타난다. 물론 두 지역 모두 기저형은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표준어 ‘마르다’(乾燥)의 활용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서부: 복수 기저형 /X{—르}-/

마른대[LHL], 마르맨[LHL], 말라도[HLL]

동부: 복수 기저형 /X{ | -리}-/

마린대[LHL], 마리매[LHL], 말러도[HLL]

4) 백두현(1992: 263)에 의하면 동남 방언의 ‘르>리’ 변화와 관련하여, 20세기 문헌 『영남삼강록』에 ‘즈리’가 나타난다. 이 변화는 치조음 위치의 ‘ㄹ’과 연구개 위치의 ‘ㅡ’ 모음이 조음시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발음의 편리성을 위해 ‘ㄹ’ 아래 ‘ㅡ’ 모음이 ‘ㄹ’과 좀더 가까운 경구개 위치의 ‘ㅣ’ 모음으로 바뀐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예는 의성의 서부와 동부에서 르-불규칙 어간으로 불리던 ‘마르다’의 활용형을 제시한 것으로 이들은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의성의 동부 지역은 ‘르>리’의 변화를 입어 기저형이 서부와 달라졌다.

기저형의 설정과 관련하여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서부에서 아-계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 ‘말라도[HLL]’를 통하여 기저형을 /말르-/ , /말르-/ , /말라-/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말르-/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시적인 어간말 으-탈락을 설정하여 활용형을 도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방언에 ‘말르고, 말르니, 말라’로 활용하여 단일 기저형 /말르-/를 설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진호(2008: 13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 자음 ‘ㄹ’로 끝나는 어간이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부에서는 복수 기저형 /X(—르)-/로 르-불규칙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게 된다.

동부에서는 아-계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 ‘말라도[HLL]’를 통해 기저형 ‘말리-’를 설정하였으나 기저형을 /말르-/ 또는 /말르-/로 설정할 수도 있다. /말르-/는 위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배제된다. /말르-/ 대신 /말리-/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첫째 이 지역에서 ‘르>리’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활용형 차원에서 일어나, ‘마린다[LHL], 마리마[LHL]’와 같이 되었고, 이것이 기저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의성의 동부 지역은 형태소 경계에서 ‘이+어’의 환경에서 반모음화 이후, 여>에 축약이 일어나지 않고 반모음 y가 탈락한다. ‘때리다’는 ‘때리--+어라→때러라[HLL]’가 되며, 동일하게 ‘마르다’의 아-계 어미 결합형은 ‘말리--+어도→말러도[HLL]’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시적인 음운 규칙이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이 음운 규칙의 변화에 의한 기저형 변화까지 반영할 수 있다면 기저형 설정에 있

어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르-불규칙 어간 중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어간이 존재하는데 표준어 ‘모르다’(不知)에 대응한다.

(4) 서부: 복수 기저형 /X{ ㄹ-레 }-/

모린다[LHL], 모리만[LHL], 몰레도[HLL]

동부: 복수 기저형 /X{ ㄹ-레 }-/

모린다[LHL], 모리마[LHL], 몰레도[HLL]

‘모르다’에 대응하는 어간은 위와 같이 의성의 서부와 동부에서 으-계 어미만 차이가 있을뿐 어간의 활용 패러다임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지역 모두 이 어간에서는 ‘르>리’의 변화를 겪었고,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형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기저형을 위와 같이 /몰레-/로 설정할지 아니면 /몰리-/로 설정할지가 문제가 된다. /몰레-/로 설정할 때의 이점은 어미와의 결합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고, /몰리-/로 설정할 때의 이점은 재구조화의 요인을 설명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즉 이전 단계의 활용형 ‘모리고, 모리니, 몰라도’를 통하여 복수 기저형 /모리-/와 /몰르-/의 단계를 상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복수 기저형 /모리-/와 /몰리-/는 기저형 간에 음운이 유사해지는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기저형을 /몰레-/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마리- ~ 말리-/를 설명했을 때와 동일하게, 형태소 경계에서 ‘이+어’의 환경에서 반모음화 이후, 여>에 축약이 일어나지 않고 반모음 y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몰리-’를 설정한다면 ‘몰리-+-아/어도’는 ‘몰라도’

또는 ‘몰러도’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몰레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⁵⁾

한편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각각 르-불규칙 어간과 유사한 활용형을 보이는 어간이 존재하는데 표준어형 ‘읽다’(讀)에 대응하며,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한다.

- (5) 서부: 복수 기저형 /X{---르}-/
이른다[LHL], 이르만[LHL], 일러도[HLL]⁶⁾

동부: 복수 기저형 /X{ | -리}-/
이린다[LHL], 이리마[LHL], 일러도[HLL]

표준어 ‘읽다’에 대응하는 이 어휘는 앞서 보았던 르-불규칙 어간의 지역별 활용형과 패러다임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기저형의 설정은 위와 같이 서부에서는 복수 기저형 /X{---르}-/로, 동부에서는 복수 기저형 /X{ | -리}-/로 설정할 수 있다.

『한국방언자료집』(경상북도편)에 의하면, ‘영풍, 의성, 달성’ 지역을 제외한 20개 지역에서 두루 나타난다. 의성 지역도 신승원(2000)에서는 나타나므로 거의 전지역에서 아-계 어미 결합형은 ‘일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어휘의 중세 어형은 ‘넙-’이므로 르-불규칙 어간과는 관련이 없

5) 한편, 동부의 젊은층에서는 ‘몬대[FL], 모고[FL], 모매[FL], 몰레도[HLL]’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른다’ 또는 ‘모른다’에서 ‘르’가 약화된 후 음절 축약과 성조의 축약으로 인한 하강조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김한별(2016: 278)에서 ‘르’ 약화와 관련된 연구사를 참조할 수 있다.

6) 서부지역의 다인면에는 ‘일른다, 일그마, 일거도’(읽다)의 활용형이 나타나, 단일 기저형 /읽-/도 존재한다.

다. 오히려 곽충구(1994: 239)에서 지적하였듯이 중세 국어 이전의 어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진 방언의 ‘니르-/닐-’과 동남방언의 ‘이르(리)-/일르-’를 고려하면 ‘*니룩(룩)-’을 재구할 수 있을 듯하다. 아-계 어미 결합형만을 보면 제2음절에서 ‘으(으)’가 탈락하고 ‘ㄱ>ㄹ>ㄹㄹ’의 변화를 입고 어두 ‘ㄴ’이 탈락하여 현재의 어간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김세환 2012: 118).⁷⁾

3.2. 애-불규칙

애-불규칙은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불규칙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여기서는 기존의 명칭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기존에 애-불규칙으로 기술하던 어간 중 표준어 ‘권하다’(勸)에 해당하는 어간을 통하여 의성 지역의 서부와 동부의 활용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 (6) 서부: 복수 기저형 /Xㅎ{ㅏ-ㅓ}/
 권하고[RHL], 권하만[RHL], 권해도[RHL]

7) 이와 유사하게 표준어 ‘바르다’((𪎐) 바르다, 選)에 해당하는 어간은 이 지역에서 다 음과 같이 활용형이 존재한다.

서부: 복수 기저형 /X{ㅏ-ㅓ}/
 바르다[LHL], 바르만[LHL], 발라도[HLL]
 동부: 단일 기저형 /Xㄹㅓ-/
 발르다[LHL], 발그마[LHL], 발가도[HLL]

이것도 위에서 제시한 ‘읽다’의 경우와 유사하게, ‘*바룩(룩)-’에서 변화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한다. 동부에서 단일 기저형으로 설정한 것은 ‘발르다[LHL]’는 ‘읽-ㅏ-는다→일르다’처럼 자음군단순화와 유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부: 복수 기저형 /X{흥-ㄱ}/-

평코[RH], 귀느마[RHL], 귀네도[RHL]

‘권하다’는 서부에서는 주로 ‘건하다’로 쓰이고 동부에서는 주로 ‘꿘다’로 쓰이며, 각 지역에 서 두 어간이 모두 쓰인다. 활용형을 보면, 서부에서는 일반적인 애-불규칙으로 존재하여 기저형은 ‘하다’ 동사의 그것과 유사하여 복수 기저형 /X{흥-ㄱ}/-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동부에서는 흥-불규칙²과 유사하여 복수 기저형 /X{흥-ㄱ}/-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⁸⁾ 동부에서 기저형이 변화한 것은, ‘X하-’ 용언의 ‘ㄱ’이 탈락되는 변화가 지음 어미와 결합할 때의 활용형과 으-게 어미와 결합할 때의 활용형에서는 일어났으나 아-게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에는 그러한 변화가 없이 ‘X하-’의 활용형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저형에도 그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서부에서는 복수 기저형 중 하나가 /X{흥-ㄱ}/-이지만 동부에서는 복수 기저형 중 하나가 /X{흥-}/-으로 된 것이다. 물론 아-게 어미와 결합하는 기저형은 그대로 /X{흥-}/-로 유지가 된다. 결국 동부에서의 활용형을 볼 때 서부에서의 기저형에서 변화하여 서부의 그것보다 더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음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그리하다’에서 발달한 표준어 ‘그러다’에 대응되는 ‘그라다’의 형태가 동남 방언에 쓰이는데, 그것의 활용형은 서부와 동부 모두에서 동일하다.

(7) 서부: 복수 기저형 /X{ㄱ-ㄱ}/-

그란드[LHH], 그라만[LHL], 그레도[LRH]

8) 흥-불규칙²는 3.4에서 다룬다.

동부: 복수 기저형 /X{ ㅏ-ㅓ }-/

그란다[LHH], 그라마[LHL], 그레도[LRH]

위에서 보듯이 이 어간은 서부와 동부에서 으-계 어미만 차이가 있을 뿐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따라서 기저형도 복수 기저형 /X{ ㅏ-ㅓ }-/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어간은 배주채(1995)에서 ‘ㅎ->허-’의 변화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그리ㅎ다’가 ‘그리허다’로 변화하여 ‘그러다’로 쓰이고, ‘ㅎ->하-’의 변화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그리ㅎ다’가 ‘그리하다’로 변화하여 ‘그라다’로 쓰인다고 보았다. 송철의(2004/2008: 181)에서는 ‘그리ㅎ다’의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리ㅎ다>그렇다>그리다>그러다’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리다’는 ‘그렇다’의 활용형에 유추되어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있는 후 현재는 아/어-불규칙, 즉 애-불규칙으로 존재하여 복수 기저형이 되었다.

3.3. ㅎ-불규칙1

ㅎ-불규칙1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ㅎ-불규칙을 의미하며 송철의(2004/2008: 160)에서 제기한 ‘앙/양’ 불규칙에 해당함을 2장에서 보았다. 즉 어간에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앙/양’ 전체라는 것이다. ‘꺼멩다’(黑)의 활용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8) 서부: 복수 기저형 /X{ ㄹ-ㅓ-ㅓ }-/

꺼머타[RHL], 꺼머만[RHL], 꺼메도[RFL]

동부: 복수 기저형 /X{ ㄹ-ㅓ-ㅓ }-/

꺼머타[RHL], 꺼머마[RHL], 꺼메도[RFL]

위의 ‘꺼뎡다’의 예는 전형적인 흥-불규칙의 예로서 의성의 서부와 의성의 동부에서 모두 동일한 복수 기저형 /X{ ㄴ- ㄱ- ㄱ- }-/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의 기저형을 /X{ ㄴ- ㄱ- }-/로 보고, ‘꺼뎡-’와 ‘꺼매-’의 둘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으-계 어미 결합형을 보면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으-계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을 ‘꺼뎡--+으만(마)’이 결합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의 활용형은 ‘*꺼머으만(마)’가 되지 ‘꺼머만(마)’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으-계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은 ‘꺼머-’가 되고, 자음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은 ‘꺼뎡-’이 되며,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은 ‘꺼매-’가 되어, ‘꺼뎡다’는 기저형이 셋인 복수 기저형 /X{ ㄴ- ㄱ- ㄱ- }-/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수 기저형의 변화가 한번 더 이루어지면 복수 기저형 /X{ ㄴ- ㄱ- }-/가 가능하다. 기저형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평준화에 해당된다. 실제로 의성의 동쪽에 위치한 청송 지역에서 ‘파랳다’(靑)는 ‘파라타[LHL], 파라코[LHL], 파라머[LFL], 파레[LF]’로 활용형이 나타난다. 이 때 으-계 어미 결합형은 ‘파랳--+으머’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공식적인 흥 탈락과 성조의 축약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세환 2012: 121). 그렇다면 이 때의 기저형은 ‘파랳-’과 ‘파레-’로 설정할 수 있어 복수 기저형은 /X{ ㄴ- ㄱ- }-/가 가능하다. 따라서 의성 지역어에서 보이는 ‘꺼뎡-’의 활용형을 볼 때 현재는 복수 기저형 /X{ ㄴ- ㄱ- ㄱ- }-/이 되어 기저형이 셋이지만 향후 변화에 있어서는 평준화를 겪어 복수 기저형 /X{ ㄴ- ㄱ- }-/으로 되면 기저형이 둘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⁹⁾

9) 동부 지역의 노년층에서는 ‘껌대[RH], 꺼무마[HLL], 꺼머도[HLL]’로 조사되었다. 만약 동부 지역에서 ‘꺼뎡다’의 활용 패러다임에서 활용형 ‘꺼머코, 꺼머마와 함께 ‘꺼머도[LFL]’(꺼뎡--+어도)가 패러다임 상에서 나타난다면 이는 단일 기저형 /꺼뎡-/을 설정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흥-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ㅎ-불규칙2

ㅎ-불규칙2는 역시 'Xㅎ-'에서 변화한 어간 '많다, 옳다' 등이 기존의 ㅎ-불규칙과는 기저형의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것들이다. 먼저 이 지역어에서 표준어 '많다'(多)에 대응되는 어간의 활용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서부: 복수 기저형 /X{ㅎ-ㄹ}/
만타[RH], 마느만[RHL], 마네도[RHL]

동부: 복수 기저형 /X{ㅎ-ㄹ}/
만타[RH], 마느마[RHL], 마네도[RHL]

위의 예는 '많다'의 활용형을 의성의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제시한 것으로 이 어간은 두 지역에서 모두 복수 기저형 /X{ㅎ-ㄹ}/로 존재한다. 중부 방언을 비롯한 많은 방언에서 '많다'는 규칙 활용을 하고 있어 단일 기저형 / 많-/을 설정할 수 있는데 반해, 의성을 비롯한 동남 방언은 위와 같이 ' 많-'과 '마네-'의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도 '만ㅎ-'는 아-계 어미 앞에서 '만ㅎ야'『월인석보 1: 16b』로 나타나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하였다. 그것은 '만ㅎ-'와 '만히-'인 것이다. 따라서 동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많다'의 복수 기저형 /X{ㅎ-ㄹ}/은 음변화에 속하는 'ㅇ'의 탈락을 제외한다면 현재의 중부 방언보다 중세 국어 또는 그 이전의 활용형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한편, 애-불규칙에서 다루었던 '권하다'가 서부 지역에서는 기저형이 /X{ㅏ-ㄹ}/로 나타나는 애-불규칙이지만 동부 지역에서는 기저형이 /X

이러한 변화를 가정한다면 복수 기저형은 셋에서 둘이 되고 다시 하나로 되어 평준화가 두 번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ㄱ}-/로 나타나는 흥-불규칙2로 나타났다. ‘권하다’의 동부 지역 기저형 /X{흥-ㄱ}-/이 바로 ‘많다’의 기저형과 동일하므로, ‘많다’는 흥-불규칙2에 해당되게 된다.

이와 유사한 활용형으로 의성의 동부 지역에서 보이는 ‘옳다’가 있다. ‘많다’의 경우는 의성의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기저형이 동일하였으나 이 어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동부를 기준으로 흥-불규칙2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활용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10) 서부: 단일 기저형 /X흥-/

옳타[HHL], 옳르만[HHL], 옳라도[HHL]

동부: 복수 기저형 /X{흥-ㄱ}-/

옳타[HHL], 옳르마[HHL], 옳레도[HFL]

‘옳다’는 아-계 어미와 결합형에서 서부에서는 ‘옳라도[HHL]’로 나타나고 동부에서는 ‘옳레도[HFL]’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활용형을 볼 때 서부에서는 중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규칙 활용을 하게 되어 그 기저형은 단일 기저형 /X흥-/으로 나타나, 중부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동부에서 나타나는 ‘옳레도’는 ‘옳-’과 ‘-아도’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옳레-+아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많다’와 동일하게 복수 기저형 /X{흥-ㄱ}-/로 볼 수 있다. 즉 동부 지역의 ‘옳다’ 역시 중부 방언보다는 중세 국어 ‘옳흥-’의 활용형이나 그 이전의 활용형과 더 유사하다.

한편 이 지역어에서 중세 국어 ‘그러흥-’에서 발달한 표준어 ‘그렇다’(當)에 대응하는 어간의 활용형은 서부와 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이 어간은 ㅎ-불규칙에 속한 것이었는데 음변화와 음절 축약을 거치면서 서부와 동부에서 기저형이 달라지게 된다. 동부를 기준으로 하면 ㅎ-불규칙2에 속할 수 있어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11) 서부: 복수 기저형 /X(ㄹ-ㄱ)-/
그르타[HHL], 그르만[HHL], 그레도[HFL]

동부: 복수 기저형 /X(ㅎ-ㄱ)-/
글타[HH], 그르마[HHL], 그레도[HFL]

위의 예는 ‘그렇다’의 활용형과 기저형을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먼저 동부를 보면 ‘많다’와 ‘옳다’가 동부에서 보이는 활용형 ‘만타[RH], 마느마[RHL], 마네도[RHL]’, ‘올타[HH], 오르마[HHL], 오레도[HFL]’와 유사한 활용 패턴을 보이므로 동일한 기저형 /X(ㅎ-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부에서는 음운의 변화로 인하여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이형태는 ‘그릉-’이 되고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는 이형태가 ‘그르-’가 된 듯하다. 그리하여 기저형은 ㅎ-불규칙을 보이는 어간과는 조금 다른 복수 기저형 /X(ㄹ-ㄱ)-/이 설정될 수 있다.

IV. 결론

이 글에서는 의성 지역의 불규칙 활용 중 소위 르-불규칙, 애-불규칙, ㅎ-불규칙의 기저형을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기저형 변화의 차이를 고찰한 후 변화 요인과 영향 관계 등을 알아 보았다. 그 전에 불규칙

의 정도성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 보고, 불규칙의 명칭과 관련된 문제도 살펴 보았다. 기저형은 서부에서는 주로 중부 방언과 유사하며, 동부에서는 동남 방언의 일반적인 기저형과 유사하였다.

르-불규칙과 관련하여, 주로 서부에서는 중부 방언과 유사한 복수 기저형 $/X\{\text{---르}\}/$ 의 형태로 존재하며 동부에서는 복수 기저형 $/X\{\text{---리}\}/$ 의 형태로 존재한다. ‘모르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복수 기저형 $/X\{\text{---레}\}/$ 의 형태로 존재한다. 르-불규칙 용언이 아니었으나 이와 유사한 활용형을 보이는 어간이 ‘읽다’에 해당하는 ‘이르(리)다’인데 이는 중세 국어 이전의 어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애-불규칙 어간은 서부에서는 주로 $/X\{\text{---애}\}/$ 로 나타나며 동부에서는 주로 $/X\{\text{---에}\}/$ 로 나타난다. 흥-불규칙1은 기존의 흥-불규칙에 대응되는 것으로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X\{\text{---에}\}/$ 의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흥-불규칙2는 ‘X흥-’에서 변화한 것은 흥-불규칙1과 동일하나, 기저형이 다르다. ‘많다’의 경우, 기저형은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X\{\text{---에}\}/$ 로 존재하며, ‘옳다’의 경우 서부에서는 중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단일 기저형 $/X\{\text{---}\}/$ 로 존재하며 동부에서는 ‘많다’와 마찬가지로 복수 기저형 $/X\{\text{---에}\}/$ 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흥-불규칙2에 해당한다. ‘그렇다’는 동부에서는 흥-불규칙2에 해당하는 복수 기저형의 유형을 보여 $/X\{\text{---에}\}/$ 로 존재하지만, 서부에서는 음운의 변화로 인하여 기저형이 달라졌다.

의성 지역어는 경북의 중앙에 위치하고 동서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서쪽의 상주와 동쪽의 청송, 영덕의 사이에서 변화의 영향을 서쪽과 동쪽에서 입기도 하고, 변화를 주기도 한다. 불규칙 어간뿐만 아니라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음운 변화의 방향을 고찰한다면 의성 지역어를 이해하고 동남 방언의 음운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봉국(2003), 『복수기저형의 설정과 그 타당성 검토』, 『어학연구』, 서울대 어학연구소, 39-3, pp.559-578.
- 김세환(2012), 『청송지역어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세환(2016), 『경북 중부의 ‘ㄴ, ㄹ, ㄷ’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 차이 - 의성군의 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 『방언학』 23, 한국방언학회, pp.59-78.
- 김한별(2016), 『경남 방언의 ‘ㄷ’ 약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80, 국어학회, pp.259-292.
- 김현(2001),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후음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 37, 국어학회, pp.85-113.
- 김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 박선우(2004), 『불규칙활용의 불규칙성에 대한 검토』, 『청람어문교육』 30, 청람어문교육학회, pp.223-249.
- 배주채(1995),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남학이중철선생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 배주채(2000), 『불규칙활용』,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pp.163-169.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배주채(2008), 『국어 음운론의 체계화』, 한국문화사.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송철의(2004), 『‘ㅎ’변칙과 ‘어’변칙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조선어 연구』 2, 조선어연구회(일본), pp.213-236.
- 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신승원(2000),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홍익출판사.
- 오종갑(2005), 『ㄷ의 음운론적 변화와 영남방언』, 『한민족어문학』 46, 한민족어문학회, pp.1-42.
- 이진호(2006),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 47, 국어학회, pp.39-63.
- 이진호(2014),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에 대하여』, 『국어학』 69, 국어학회, pp.3-29.
- 이진호(2015), 『“불규칙”의 개념과 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학연구』 36, 인하대

- 학교 한국학연구소, pp.457-476.
- 이혁화(2002),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박이정, pp.59-80.
- 임석규(2004),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활용 패러다임」, 『형태론』 6-1, 박이정, pp.1-23.
- 정철(1991), 『경북 중부지역어 연구』, 경북대 출판부.
- 천시권(1965), 「경북방언의 방언구획」, 『어문학』 13, pp.1-12.
- 최명옥(1980), 『경북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최명옥(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 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14, 국어학회, pp.149-188.
- 최명옥(1993),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성곡논총』 24, pp.1599-1642.
- 최명옥(1994),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 우골담, pp.861-892.
- 최명옥(1998),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 최명옥(2008), 『현대 한국어의 공식 형태론: 경주지역어를 실례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창원(2014), 「경북 의성 지역어 활용 어간의 복합형태소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56, 국어교육학회, pp.319-348.
- 국립국어원(2009),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9), 『한국방언자료집』 VII(경상북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bstract

The Study of li, ε, h-Irregular Stems in the Uiseong Subdialect

Kim, Se-hwan

This paper aims to study underlying forms of the so-called li, ε, h-irregular stems in the Uiseong sub-dialect, and there are main difference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areas in Uiseong based on these irregular stems. In terms of irregular stems, li-irregular stems exist in multiple underlying forms: /X{i-li}-/ in Western areas and /X{i-li}-/ in Eastern areas. Meanwhile, ε-irregular stems mainly exist in multiple underlying forms: /Xh{a-E}-/ in Western areas and /X{h-E}-/ in Eastern areas. The H-irregular 1 i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h-irregular, and the h-irregular 1 mainly exists as the multiple underlying form, /X{h-E}-/, in both areas. However, 'olh-' exists as the single underlying form /Xh-/ in the Western areas and in the multiple underlying form /X{h-E}-/ in Eastern areas. Finally, for 'giləh-' for example, h-irregular 2 exists as the multiple underlying form /X{h-E}-/ in the Eastern areas, but in the Western areas, it exists as the multiple underlying form /X{ih-E}-/ because of sound change.

Key Word: Uiseong Subdialect, li-irregular, ε-irregular, h-irregular, multiple underlying form, irregular

김세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shkim93@yu.ac.kr

이 논문은 2017년 8월 14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